2015년
4월 14일 화요일

NO.391

상생뉴스

한국철도시설공단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실현

/ 발행인 강영일 / 편집인 신철수 / 기사문의 042)607-3085 / http://www.kr.or.kr /

철도공단, 「수도권고속철도 안전운행 협의회」개최

- 운영자인 수서고속철도(주)와 협의회를 통해 원활한 개통 및 철도안전 협력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이수형)은 4월7일(화) 수도권고속철도의 원활한 개통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대전 본사에서 공단 시설사업본부장, 수서고속철도(주) 영업본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서고속철도 안전운행 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철도공단은 '정부 3.0'의 소통과 협력의 일환으로 수서고속철도(주)와의 협업을 통해 건설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반영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했다.

철도공단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수서역 매표창구 및 화장실 추가설치, 광주 승무센터 확보, 수서주박기지 사무공간 확대 등에 협조하기로 하고, 앞으로 개통 전 까지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이용자 중심의 시설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 보완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고속철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고속철도는 수서역을 기종점으로 부산, 목포를 운행하기 위해 총 사업비 3조 1,197억 원을 투입해 수서-동탄-평택(61.08km)을 잇는 사업으로 2011년 5월 공사를 착공해 2016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68%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협 의 회 개 최 사 진

철도공단의 '우수 설계검토 노하우(사례)'를 공유합니다!

- '14년 VE · 설계심사 우수사례를 내용으로 '사례집' 발간 -

KR연구원(원장 이동렬)은 공단에서 2014년 시행한 설계VE · 심사결과 중 우수사례를 정리해 '2014년 VE · 설계심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4월6일(월)부터 공단 홈페이지(www.kr.or.kr)를 통해 게시해, 누구나 공단의 심사 노하우를 볼 수 있도록 공유했다고 밝혔다.

* VE(Value Engineering) : LCC(Life Cycle Cost)를 고려한 최상의 가치창출 기법
* 설계심사 : 설계 성과물의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절차

'2014년 VE · 설계심사 사례집'에는 ▲ 공사용 강재교량의 길이축소(552m→500m), ▲철도선로를 횡단하는 구조물 변경(교량→지하Box), ▲배전용 트러프 재질 변경(합성수지계열→콘크리트), ▲변전소 외곽감시방식 개선(케이블 방식→움직임 감지방식)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사업비 절감 뿐 아니라 품질향상 관련 각 종 설계검토 사례를 확인 할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사례집을 공단의 협력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와 파일형태로 배포할 계획으로, 설계성과물의 질적 향상 및 설계사 업무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철도공단 KR연구원은 2014년 한 해 동안 182건의 철도건설공사 설계에 대해 내 · 외부 전문가 718명이 참여, 180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총 5천920여건의 설계개선 제안사항을 발굴 · 개선하여 설계품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4천695억원의 철도건설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다.

2014년 VE · 설계심사 사례집

한국철도시설공단, 불공정관행 뿌리 뽑는다

- 공공(公共) · 민간(民間) 합동 T/F 구성 및 1차회의 개최 -

기획재무본부(본부장 박인서)은 지난 3.26일 공공 · 민간 합동으로 '불공정관행개선팀(T/F)'을 구성하고,

* 민간협회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eng협회

4.2일(목) 오후 3시, 1차 불공정관행 개선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조건 및 부당특약 등 9건의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개선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번회의에서 공단과 철도관련 협회(4개)는 예가산정 부적절, 적정공사비 미확보, 자재검수 경비의 전가,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특약요구) 및 재설계 비용 미지급 등 건설현장 전반의 불공정관행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잡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단은 제기된 불공정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즉각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철도 건설현장의 생생한 불공정 실태파악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발굴하여, '15. 6까지 집중개선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금번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해 공공 · 민간이 상생 · 협력하여 철도건설 산업에 공정경쟁 문화를 정착하고,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좋은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건설현장의 대표적 불공정관행 개선과제 (9건)

① 예가 산정기준(100%-5%) 부적절 등 적정 공사비 확보대책
② 신규비목 등의 협의율 적용방안 개선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요율 이하로 적용 등 실태 개선
④ 자재 제작공장 검수비용 · 경비 미반영 또는 시공사에 부담
⑤ 현장 가설사무소, 상황판 등 적정 규모로 설치 필요
⑥ 공사 · 자재대금의 End-user까지 흐름 철저한 감시대책 마련
⑦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및 부당한 특약 체결 강요
⑧ 기본 및 실시설계 구분발주 필요 등 적정 설계비 확보대책
⑨ 설계기준 변경시, 재설계에 따른 추가 설계비 적정 지급

투명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당업자 즉시 조치

- 입찰 시 허위서류 제출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행 -

경영지원실(실장 이명환)은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한국코아엔지니어링」에 대해 지난 3월27일(금)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제한 3개월의 행정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공단에서 작성한 문서를 위조해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하고, 위조된 문서로 발급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를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전철전력설비 신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입찰참가 시 제출하였으나, 공단의 입찰서류 심사과정에서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해당 업체는 2015년 4월 3일 부터 3개월간 공단을 비롯한 전 공기업 · 준정부기관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경영지원실 관계자는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공정한 계약질서를 문란케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업체 의무참여 공사' 확대 시행

-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 기준금액 8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확대 적용 -

경영지원실(실장 이명환)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 기준금액을 기존 8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확대하여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해당 지역업체에게 계약금액의 30%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함으로, 공단의 기존 기준금액인 82억원을 적용할 경우, 금년에 7건 1천177억원 중 353억원이 지역업체의 몫이었으나, 변경된 기준금액인 245억원을 적용할 경우에는 42건 3천587억원 중 1천076억원이 지역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다.

경영지원실 관계자는 "금번 기준금액 확대 적용을 통해 국 · 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경기 활성화는 물론 대 · 중소기업간 상생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 이라 전했다.

철도공단, 올해 1분기 설계VE와 심사로 567억원 절감

- 사업비 절감 뿐 아니라, 철도 품질향상과 안전확보에서도 성과 -

KR연구원(원장 이동렬)은 '15년도 1/4분기 철도건설사업 설계 성과물에 대한 39건의 VE 및 설계심사 활동으로 567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연초 수립한 '15년도 목표 1천756억원의 32.3%에 해당하는 수치로 내 · 외부 전문가 160명이 40회 이상의 VE워크숍 및 설계심사 회의에 참여하여 총 1천600여건의 VE 개선제안사항과 설계심사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노선계획 주변의 정온시설, 지형여건 및 지반조건 등을 감안한 교량 상부형식 변경(스틸박스→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을 통한 교량계획 최적화, ▲ 터널 배수관을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경제적인 재질로 변경(아연도유공관 → THP 유공관), ▲ 정거장 구내 단계별 시공계획에 따른 자재 철거 발생품 재활용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관련 내용과, 철도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 철도 운행선 인접공사 시 열차감시원 추가 배치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안전 및 품질 확보를 통한 철도건설 사업의 성능가치 향상을 위한 활동이 포함되었다.

철도공단은 '15년부터 'VE 가치향상도 평가기법'을 적용해 사업비 절감 뿐 아니라, 품질향상 및 안전 확보 등 성능가치 향상에서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
* VE 가치향상도 평가기법('14.12월) : 사업비 절감 및 품질향상, 성능가치 향상 효과를 위해 개발한 VE기법

연구원 관계자는 "그 동안 설계VE와 심사를 통해 철도건설 원가절감 및 공단의 부채감축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15년도에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연간 목표 1천756억원의 사업비 절감 달성 및 철도건설 가치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사항〉

* VE(Value Engineering)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조직이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대안을 창출하는 기법으로 설계 60%단계에서 시행

* 설계심사란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 성과물 및 발주 설계도서의 부적합 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설계변경요인을 사전에 제거/예방하는 절차로 설계 90%단계에서 시행

서울역 인근 유휴부지 개발사업 사업주관자 공모

- 4월 7일(화) 수도권본부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이수형)은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토지 활용 가치가 및 개발 입지가 좋은 서울역 인근 철도시설부지(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43-205) 4,299㎡를 대상으로, 4월2일(목)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주관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설명회는 4월 7일(화)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서울역 인근) 4층 상황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사업주관자 공모지침서 등은 공단 홈페이지(www.kr.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철도공단은 우리나라 수도의 관문인 서울역이라는 상징성을 살리고, 철도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월2일(목)부터 6월1일(월)까지 60일간 사업주관자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에 공모를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부지는 우리나라 수도 관문인 서울역에 인접해 있으며, 공항철도와 경의선, 지하철 1호선, 4호선, 서울시티투어 등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중심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본부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다.

충청본부, 자매결연 마을에서 재능기부 활동 펼쳐

- 전기분야 직원들이 모여 시설물 보수 봉사 시행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 KR봉사단은 4월9일(목) 1사1촌 결연마을인 옥천군 옥각리(이장 강승언) 마을을 찾아 전기안전 등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시설보수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충청15명은 공단의 전기분야 직원들로, 마을의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거주하는 가정을 찾아, 낡은 옥내외 전기등을 보수 하고, 오래된 전기배선 철거 및 교체, 분전함 점검, 불량스위치 교체하는 등 본인들의 재능에 맞춰 맞춤형 봉사활동을 벌였다.

본부 관계자는 "도농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마을을 찾아 농번기 일손돕기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에 앞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 우선 착공한 아산시구간 대상...5월12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 중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서해선(홍성-송산)복선전철 사업 구간 중, 아산시 구간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애로사항 청취하기 위해 4월2일(목)부터 5월12일(화)까지 9차례에 걸쳐 마을 단위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공사구간, 예산 등의 사업내용과 공사방법, 용지보상, 환경영향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 전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철도건설의 필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고품질의 서해선 복선전철을 건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공단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이 통과하는 홍성군, 예산군, 당진시, 평택시, 화성시구간의 지역주민들에게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1〉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 약도

〈붙임2〉 아산시 주민설명회 일정

지자체	마을별	일시	장소	비고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2015.4.2.(목) 11:00~	신문리 마을회관	
	선장면 채신언리			
	인주면 해암3리	2015.4.2.(목) 14:00~	해암3리 마을회관	
	인주면 금성리	2015.4.9.(목) 11:00~	금성리 마을회관	
	인주면 도흥1리	2015.4.9.(목) 14:00~	도흥1리 마을회관	
	영인면 월선2리	2015.4.14.(화) 14:00~	월선2리 마을회관	
	인주면 냉정리	2015.4.30.(목) 11:00~	냉정리 마을회관	
	영인면 신현리	2015.4.30.(목) 14:00~	신현리 마을회관	
	인주면 모원리	2015.4.30.(목) 14:00~	모원리 마을회관	
	영인면 백석포리	2015.5.12.(화) 14:00~	백석포리 마을회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을 위한 용지보상 착수

- (충남)홍성에서 (경기)송산까지... 서해선 전 구간 용지보상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서해선 복선전철(홍성~송산간) 건설을 본격 착수하기 위해,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전구간 용지(토지와 각 종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3월30일(월)부터 충남 홍성군과 당진시를 시작으로 전체 노선에 편입되는 용지(5,096필지, 3,026천㎡)에 대하여 협의보상을 착수했으며, 토지 소유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홍성, 평택 및 화성 등 3곳에 보상사무실을 운영한다.

또한 지자체, 소유자 대표, 사업시행자(철도공단)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도 개최하여 토지소유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올해 5월말까지 약2개월간에 걸쳐 협의보상을 시행하고 보상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추가협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상사무실 개설현황

구 분	주 소	연락처
홍성사무실	충남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31 국제아르페온1차 211호	041-633-4562
평택사무실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8길 35-4, 502호	031-686-7008
화성사무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64 복남프라자 502호	031-354-3850

중앙선 도담~영천 철도건설사업 토지보상 시행

- 충북 단양군 및 경북 안동시 대상.. 올해 350억원 투입 -

강원본부(본부장 최정환)는 중앙선 도담~영천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충북 단양군과 경북 안동시 일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4월말부터 용지보상협의 착수한다.

이번에 단양군과 안동시 대상 보상물량은 토지 393필지와 지장물 288건으로, 향후 영주시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올해 약350억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강원본부는 올해 1월 사업실시계획이 승인 후, 2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였고 3월까지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과 보상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체를 포함한 3개 평가업체를 선정해 감정평가를 시행하였다.

철도공단은 용지보상이 착수됨에 따라 중앙선 도담~영천 철도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2018년까지 약 3조 6천억원을 투입해, 중앙선 전 구간을 전철화할 계획이다.

최정환 본부장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원활한 보상업무를 진행하겠다."고 전하며, "경북내륙지역의 여객 및 물류 발전을 위해 고품질의 철도를 건설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도담~영천 사업현황 및 보상계획

사업개요
- ㅇ 사업내용 :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도담~안동(72.2km) 복선, 안동~영천(75.9km) 단선]
- ㅇ 사업기간 : 2010~2018년
- ㅇ 총사업비 : 3조 6,474억원
- ㅇ 실시계획승인 : '15년 1월 2일(국토부고시 2014-884호)

추진경위
- ㅇ '09.12~'10. 6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B/C 0.8, AHP 0.557)
- ㅇ '10. 9~'11.12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시행 (B/C 0.86)
- ㅇ '12. 4. 3 : 기본계획 고시
- ㅇ '12.11.28 :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체결
- ㅇ '13. 1.31 : 턴키공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1,2,6,11공구)
- ㅇ '13.11. 4 : 턴키공사 6공구 공사계약 체결
- ㅇ '14. 1.10 : 턴키공사 1,2공구 공사계약 체결

보상계획
- ㅇ '15. 3월 : 1, 6공구 감정평가, 보상협의 및 2공구 보상계획 공고
- ㅇ '15. 4월 : 1,6공구 협의보상(1공구 202필지, 6공구 191필지)
- ㅇ '15. 5월 : 2공구(461필지) 협의보상
- ㅇ '15. 7월 : 1,2,6공구 미매수 토지 재결신청 및 3~5공구 협의보상
- ㅇ '15. 9월 : 3~5공구 미매수 토지 재결신청
- ㅇ '15.11월 : 1, 2, 6공구 수용재결 및 공탁완료(12월)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진입도로(시도16호선) 완공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은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진입도로 공사를 4월2일(목) 고속철도 개통에 맞추어 4월1일 완공했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을 진입하는 도로는 공주시의 시도16호선과 리도207호선으로, 이 중 리도 구간은 지난 2월 완공하였으나, 시도 구간은 지자체의 용지보상이 지연되어 공사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공단은 기공승락과 노선변경을 동시에 진행하고, 휴일 · 야간작업병행, 인력과 장비의 추가투입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착공한지 1개월 만에 고속철도 개통일에 맞추어 4월 1일 완공하였다.

이번 진입도로의 완공으로 공주역을 이용하는 철도이용객의 불편이 해소되고 공주역에 대한 접근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舊)전라선의 신리터널,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

- 예술작품과 도서를 비치해 문화체험 공간으로 조성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전라선 복선전철 개량사업으로 발생한 폐철도노선 중 신리터널(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사이에 위치)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0월 전라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사용하지 않게 된 신리터널(총255m길이)은, 접근성 등 입지조건이 좋아, 올해 2월부터 일반인 대상 임대를 추진했으며, 터널 내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옹기 · 미술품 등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도서를 비치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험공간으로 꾸며 오는 7월 개장할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철도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폐선부지 및 유휴부지에 대해 지역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친화적이고 주민편의적인 공간으로 상업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고속철도건설로 발생한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사용된다." 고 전했다.

철도공단 호남본부는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등 철도건설 사업으로 사용되지 않는 폐노선의 터널 중 활용가치가 높은 곳을 선별해 일반인 임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남지역 9개와 전북지역 2개 등 11개 폐터널에 대해 지자체 협력한 주민편의 공간이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버섯재배, 특산물 · 농작물 저장소 또는 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철도부지 임대에 대한 사항은 호남본부 재산담당(061-840-5053)에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철도공단 담당자를 통해 현장확인(안전성 · 접근성) 등 맞춤형 임대설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호남본부, 1사1촌마을과 '사랑의 나무심기' 행사

- 4월9일 전남 구례 방광마을에서 남천나무 등 150그루 식재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4월9일(목) 제70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전남 구례군 광의면에 위치한 방광마을을 찾아 남천나무 등 150그루 나무를 심는 '사랑의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호남본부와 방광마을은 지난 2014년 7월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 일손 돕기, 현지 생산 농산물 구입 등 도농상생의 농촌사랑운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방광마을에서 요청한 남천나무와 가시나무를 하계캠프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근 수영장 주변 특색에 맞게 식재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해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호남본부 박찬탁 처장은 "직원들과 마을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심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다음 세대들에게 푸르른 국토를 물려주는데 일조하기를 희망한다."며,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소백산 국립공원 환경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서다!

-환경 · 생태 공동조사단 발족, 죽령터널(도담-영천 철도건설구간) 친환경 공사 추진-

강원본부(본부장 최정환)은 중앙선 도담~영천 철도건설 구간 중, 소백산 국립공원 일부 지역을 통과하는 죽령터널 건설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및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 · 생태 공동조사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이 구성한 환경 · 생태 공동조사단은 지역주민, 학계, 지자체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04월 03일(금) 킥오프 미팅 (Kick off meeting,KOM)을 시작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공동조사단은 2015년 4월부터 공사가 완료되는 2017년 3월까지 죽령터널(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전체 11km 구간에서 포유류 · 양서류 등 동물 생태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철도시공 시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한 저감방안을 마련해 반영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이 개통되면 간선철도 기능이 강화되어, 철도 수송체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한 차원 높여줄 중요한 사업" 이라며 "이번 죽령터널 구간에서의 합동조사단 운영은 친환경 철도 시공의 모범적인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고 전했다.

강원본부, '봄철 공사현장 흙먼지' 이제 그만

- 관내 21곳 대상.. 3월31일부터 4월8일까지 비산먼지 일제점검 -

강원본부(본부장 최정환)는 봄철 건설현장 비산먼지 발생 대비하여 3월31일(화)부터 4월8일(수)까지 원주~강릉 철도사업 등 관내 4개 사업 구간에 대해 '철도건설현장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강원본부는 건설현장 주변 환경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자발적으로 일제점검을 통해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저감유도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철도공단, 협력업체 등 관련분야 약 47명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행하며, 봄철 비산먼지 발생위험이 높은 토공작업 구간, 토사 운반차량이 빈번한 곳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본부 관계자는 "봄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공사를 위해 선제적 예방점검 활동 및 현장의 환경문화를 정착 시켜 더욱 더 환경관리에 이바지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빠회사에 나무 심으러 가요"

시설장비사무소 가족과 함께하는 식목행사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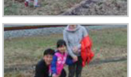
시설장비사무소(소장 김동엽)는 식목주간을 맞이하여 지난 4월 3일 시설장비사무소와 품질시험센타에 근무하는 직원의 가족 20여 명을 초청하여 직원 40여명과 함께 오송기지 내에서 자체 식목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식목행사는 기지 내 유휴부지에 약 100여 그루의 매화나무를 식재하고, 기존에 식재된 나무에 퇴비 주기 및 곁가지 치기 작업 등을 시행했으며, 가족들이 심은 나무들은 가족이름표를 달아주었다.

식목행사를 마친 후 가족직장체험과 가족친화활동 시간을 마련하여 사무실과 현장을 방문하여 장대레일 용접장면을 직접보고, 기관차 및 종합검측차량 등 평소 대하기 어려운 장비와 무가선트램을 시승하기도 했다.

가족친화활동에는 구내식당에서 직원들끼리 가족을 소개하며 가벼운 식사를 하며 추첨을 통해 사무소에서 마련한 작은 화분을 선물로 받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동엽 사무소장은 이런 기회를 통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가족들과 함께 심은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족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으며, 참석한 가족들도 이곳에 나무를 심고 보니 "내 직장이 된 것 같다" 며 직장체험을 해보니 직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흐뭇해하였다.

〈시설장비사무소 홍성희 기자〉



주요기사(2015. 4. 1~13)

2015. 04. 01. (수)
- ◈환경훼손 최소화, 빠르고 안전한 전국 반나절 생활권 완성(동아일보F03)
- ◈지역발전' 부푼 꿈 싣고 달리는 호남고속철(서울경제31)
- ◈ 'KTX 호남선' 오늘 광주 송정역서 개통식(중도일보4)
- ◈호남KTX 오늘 광주 송정역서 개통식(무등일보1)
- ◈송정 출발 93분이면 용산역... 광주~서울 출퇴근 가능(광주일보3)
- ◈호남선 개통 101년만에 'KTX 교통혁명'(전남일보1)
- ◈호남고속철, 광주 송정~서울 용산 최단 1시간33분만에 주파(전남일보1)
- ◈수도권 접근성 획기적 개선… 지역발전 '속도' 붙는다(전남일보3)
- ◈경제효과 2천900억 · 고용효과 4천1000여명(무등일보3)
- ◈[청사초롱]KTX 호남선 개통과 간이역(국민일보27)
- ◈3시간 단축 '기적' …동해안 발전 기적 울리다(국민일보14A)
- ◈송정역 교통체계 · 도로망 대수술(국민일보14B)
- ◈KTX개통… 포항도 이젠 '관광명소'(한국일보12B)
- ◈포항, 반나절 생활권 편입 됐다(세계일보12A)
- ◈수도권과 반나절 생활권 … 경북동해안 발전에 획기적 전기(경북일보7)
- ◈'철의 도시' 포항, '철도의 도시' 됐다(경북일보1)
- ◈포항 KTX 시대 열렸다(대구일보1)
- ◈동해안 KTX시대 개막…2018년엔 삼척까지 질주(영남일보2)
- ◈ '반쪽 호남고속철' 대통령이 풀어야(무등일보1)
- ◈광주역 진입 무산… 존치냐 폐쇄냐, 둘로 갈린 여론(전남일보5)
- ◈부산 도심 철도시설 2023년까지 이전(부산일보1)
- ◈"폐선 부지 상업시설 설치 땐 시민 위험 노출"(국제신문8)
- ◈동해안권 교류 · 경제발전 기대감 고조(경상일보6)
- ◈영동 경부선 철도사면부 개량 추진(대전일보17)
- ◈ "새만금경협 성공, 국제공항 · 서해안철도에 달려"(전북일보3)
- ◈포항 KTX시대 축하하는 내빈들(news1)
- ◈부산 도심 철도시설 외곽이전 사업 경제성 있어(연합뉴스)

2015. 04. 02. (목)
- ◈호남KTX 시승한 朴대통령, 옆자리 대학생과 대화 (조선일보1)
- ◈朴대통령 "고속철이 湖南경제 도약 이끌 것" (조선일보1)
- ◈"光州, 인천공항까지 3시간 한 · 중 FTA 수혜 기회 잡아" (조선일보4)
- ◈호남고속철도 개통… 서울~광주 1시간 33분 (동아일보1)
- ◈ "철도, 이젠 대륙으로 달려 나가야" (동아일보8)
- ◈호남KTX 오늘 개통… 호남관광 활성화될까 (동아일보20E)
- ◈호남KTX 개통… 서울행 열차 시승한 대통령 (매일경제1)
- ◈KTX 타고 오는 '호남경제의 봄' (한국경제1)
- ◈시속 300km 속도혁명 … 호남 혁신도시 · 산업단지 · 관광산업 '들썩' (한국경제3)
- ◈호남고속철도 개통 (한겨레9, 경향신문6, 국민일보1 · 4, 서울신문1 · 6, 세계일보1 · 2, 한국일보5, 서울경제1 · 8, 파이낸셜뉴스1 · 6 · 11 등)
- ◈관광지 연계 송정역 환승체계 구축 시급 (광남일보3)
- ◈ "정읍, 서남권 거점도시 될 것" (전북일보8)
- ◈"200조 글로벌 철도시장 진출 박차" (무등일보1)
- ◈ "KTX오송역은 국토 중심축" 與 · 野 충북도당 긍정적 언급 (충청투데이4)
- ◈7년 답보' 대전역 증축공사 이달 재개 (세계일보12A)
- ◈텅 빈 서대전역 … 대전시민은 서럽다 (중도일보1)
- ◈호남고속철도 개통 (경기일보4, 전남일보1 · 2 · 3 · 6, 광주일보1, 전북일보1, 경북일보2, 경상일보4, 매일신문8, 강원도민일보4 등)
- ◈朴대통령 언급 없어... 노선도 착공시기도 '안갯속' (광주일보3)
- ◈충주~이천 내륙선 철도건설 가시화 (중도일보17, 충청투데이16A, 대전일보16)
- ◈13조 말聯~싱가포르 고속鐵 수주 탄력 (매일경제2)
- ◈[사설]이제는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이다 (광남일보19)
- ◈[사설]KTX 전국망 시대 … 수도권 · 지방 타령 이젠 그만 (한국경제39)
- ◈서울~광주 1시간 반.. 반나절 생활권 (KBS, SBS, MBC)
- ◈호남도 반나절 생활권 시대…서울~광주 '93분' (YTN, TV조선 등)

2015. 04. 03. (금)
- ◈일부 구간 최고 속도 시속 200㎞ 2일 개통 포항 KTX는 '준고속철(중앙일보R3)
- ◈호남고속철 개통 'U대회 알리기' 구슬땀(광남일보3)
- ◈朴대통령 "지역 여론 · 승객 수요 고려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곧 결정해야"(광주일보3)
- ◈[그래픽 뉴스]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논란(전북일보15)
- ◈ "호남KTX 개통, 전주 1000만 관광객 유치를"(전북일보5)
- ◈'KTX공주역' 116년 만에 철도시대 개막(중도일보8)
- ◈"호남권 이동시간 단축" 기대감 첫 열차 떠나자 분주함 사라져(대전일보3)
- ◈나주시 "나주역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광남일보13)
- ◈경의중앙선 파주 야당역사 상량식(경인일보08A)
- ◈철도공단 영남본부 '생명의 숲 가꾸기'(경상일보17)
- ◈호남고속철 공주역 진입로 착공 1개월만에 공사 완료(대전일보2)
- ◈정부,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고속철사업 시동(아시아경제18)

2015. 04. 06. (월)
- ◈수서KTX 연말 개통 어렵다(파이낸셜뉴스6)
- ◈수서 KTX 개통 내년 하반 기로 늦춰질듯(국민일보14)
- ◈수서KTX 개통 내년 하반기로 늦춰져(매일경제10)
- ◈호남KTX, 역주행 · 급정거... 개통하자마자 '사고철'(조선일보14)
- ◈ '청테이프 개통' 호남선 KTX 이번엔 역주행 소동(서울신문10)
- ◈호남KTX 개통하자마자 사고 속출(중앙일보16)
- ◈철도시설공단 식목일 맞아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 가져(충청투데이22)
- ◈좌석수 13% 증가 … 더 넓고 더 편안한 여행 누리세요(중도일보10)
- ◈대전 동구 성남지하차도 개통(대전일보5, 중도일보06)
- ◈예산군, 서해선 복선전철 소통창구 역할(충청투데이16,대전14,중도15,대전MBC)
- ◈다음 정차역은 '백제 테마' KTX공주역입니다(세계일보10A)
- ◈철도시설공단, 7일 서울역 유휴부지 개발사업 설명회 개최(이데일리)

2015. 04. 07. (화)
- ◈KTX 설움 광주역, 존폐 위기 이용객 3분의 1 수준 떨어져(국민일보13A)
- ◈KTX 공주역, 백제문화 테마역 조성(국민일보13A)
- ◈호남고속철 개통 후 평균 이용객 대폭 ↑(광남일보1, 광주6, 무등6)
- ◈철도공단 공사계약, 지역업체 몫 3배 늘린다(중도일보5)
- ◈철도시설공단 지역의무공동도급 82억→245억원 확대(충청투데이9)
- ◈입찰과정 허위서류 제출업체 철도시설공단 참가자격제한(충청투데이9)
- ◈ "잇따른 고속철 사고 낙하산 사장 탓"(무등일보4, 무등, 전남, 광주)
- ◈ "용인시 숙원 KTX 역사 신설을"(경기일보10)
- ◈ "원주역사 부지 국립철도박물관 적합"(강원일보18)
- ◈[전일 칼럼]호남선 KTX 개통 광주 · 전남 상생발전 계기로(전남일보19)
- ◈근대화 상징이자 日야욕의 산물 수인선 폐선 1995년 자취 감춰(경인일보18)
- ◈철도공단, 서해선 복선전철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철도공단, 허위서류 제출한 업체에 '입찰참가 제한' 조치

2015. 04. 08. (수)
- ◈ '서해선 · 장항선 복선화 · 대산~당진 고속道' 환황해권 황금열쇠(충청투데이11)
- ◈백화점, 'KTX 빨대효과' 차단 분주(광주일보14)
- ◈철도시설공단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강원도민일보6)
- ◈ "KTX 수원역 출발 사업 정부, 서둘러 추진해야"(국민12)(파이낸셜27)(인천1)
- ◈오송역세권 민자개발 본격화(대전일보17)
-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가능성 커졌다(경남신문1)
- ◈KTX 개통 11주년 포럼(대전일보9)
- ◈ "강원 · 호남 공조 X축 철도망 구축"(충청투데이03A)
- ◈몽골~중국간 '바퀴교체 4시간' 멈춰선 열차(경인일보9)
- ◈철도산업 해외진출 전담 조직 만든다(news1)
- ◈국토부, 신규개통 2개 철도노선 운영자 입찰 재공고(아시아투데이)(헤럴드경제)
- ◈철도시설공단, 서울역 인근 유휴부지 개발사업설명회(news1)
- ◈철도공단 강원본부, 건설현장 비산먼지 점검(news1)
- ◈서울~여수 KTX 2시간...여수관광 '청신호'(news1)

2015. 4. 9. (목)
- ◈호남고속철 부품업체 "국산화" 속여 352억 챙겨(중앙 12)
- ◈인천發 KTX 노선 '수인선' 연계 추진(경인 03)
- ◈울산 철도폐선부지 활용 학술연구 본격 착수(경상 02)
- ◈송정~목포 2단계 진정한 고속철 완공을(무등 06)
- ◈수서고속철도 안전운행협의회(중도 04, 충청투데이 04)
- ◈폐철도 전라선 신리터널, 문화공간으로(전북 04)
- ◈전라선KTX 노후 객차 배치 이용객 분통(전북 05)
- ◈서울 경전철 6곳-경인고속도 지하화 … 민 · 관 7조 투자(중앙 06)
- ◈감사원 "佛업체, 호남고속철도 기술이전계약 미이행"(종합)(연합뉴스)
- ◈철도공단-㈜SR '수서고속철도 안전운행협의회' 개최(연합뉴스)
- ◈'폐철도' 전라선 신리터널, 문화체험 공간으로 재탄생(연합뉴스)
- ◈호남KTX 개통에 '수도권 역류효과' 대책 부심(서울)

2015. 04. 10. (금)
- ◈1분기 567억 사업비 절감 한국철도시설공단(파이낸셜뉴스25)
- ◈철도시설공단, 설계 성과물 VE · 설계심사 567억 사업비 절감(충청투데이9)
- ◈철도공단 호남본부, 1사1촌 '사랑의 나무심기'(광남일보12)
- ◈포항시 'KTX 개통기념 시민화합한마당' 개최(영남일보10)
- ◈서울 경전철 · GTX 등 장기적 호재 … 2017년까지 글로벌 158조원 시장(한국경제B04)
- ◈中 고속철도 도입 10년 만에… 차량 · 설비 수출까지 급성장 세계 1위로(한국일보20)
- ◈국가철도망 X축 중심… '교통 · 문화 허브 도시' 탈바꿈(세계일보W04)
- ◈시속 430㎞ '해무' 앞세운 현대로템 … 美 · 브라질 등 新시장 노려(한국경제B05)
- ◈철도시설공단-전문건설협회, '동반성장 및 불공정 관행 개선' 간담회 개최(건설타임즈)
- ◈철도공단, 올해 1분기 설계VE와 심사로 567억원 절감 · · · 철도 품질향상과 안전확보에도 성과(헤럴드경제)
- ◈박인용 장관, 고속철도 건설현장 점검(NEWSIS)
- ◈철도공단 호남본부, 1사1촌마을과 '사랑의 나무심기' 행사(아시아경제)

2015. 04. 13. (월)
- ◈[경제의 눈]호남고속철, 한반도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동아일보B02)
- ◈서해안복선전철 보상 시동(대전일보9, 중도일보4)
- ◈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1사1촌 결연마을서 재능기부(충청투데이22)
- ◈남구 수인선 역명 결정 통보 국토부 6월 '판가름' 짓는다(인천일보2)
- ◈호남KTX 개통후 전북권 철도 이용객 급증(전북일보8)
- ◈여전히 불안한 시민의 발... '안전 망각'의 길 달린다(서울신문6)
- ◈[서소문 포럼] 시진핑의 '일대일로' vs 클린턴의 '신실크로드'(중앙일보28)
- ◈광주U대회 북한 선수단, KTX타고 광주까지(아주경제)
- ◈철도공단,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용지보상 착수(연합뉴스,NEWSIS,파이낸셜)
- ◈철도기관 합동 찾아가는 공공구매 상담회(충남일보)

경 조 사

경영지원실 계약처 정용선 과장 본인상
ㅁ 발 인 : 2015년 4월 3일

수도권본부 건설총괄처 김찬민 차장 빙모상
ㅁ 발 인 : 2015년 4월 4일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김태희 부장 빙모상
ㅁ 발 인 : 2015년 4월 5일

호남본부 건설기술처 정창남 과장 빙모상
ㅁ 발 인 : 2015년 4월 6일

강원본부 시설 · 전기관리부 김한일 차장 차녀 결혼
ㅁ 일 시 : 2015년 4월 12